

사회

송정역 철길은 ‘사고철’

도심 관통 철로 진입차단 펜스 등 안전시설 전무 20대 여성 열차 치여 숨져... 한달전 30대 남성 사망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 주변에 안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경전선 삼랑진 기점 300km 지점에서 이모(여·24)씨가 광주발 순천행 1976호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열차 기관사는 경찰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한 여성이 철로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지만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6시40분께 펜스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는 철로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송정역~순천 무궁화호 1976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한 호텔 주방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이날 새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송년모임을 갖고 귀가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이씨가 숨진 철로 위에서 구토 흔적이 발견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갑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술에 취한 이씨가 철로 위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지점은 보행자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철조망과 같은 안전시설은 물론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이씨가 숨진 지점과 불과 3~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인근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철조망 등 안전시설은 전혀 없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밤 11시16분께에도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하남역 인근에서 이모(30)씨가 용산발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 지난 8월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관주산 등산로 인근 선로에서 여수에서 나주로 향하던 화물 열차에 50대가 치여 숨지기도 했다.

17일에 발생한 사고 지점의 인근 주민 박모(55)씨는 “주민들도 선로 양옆에 나 있는 쟁길을 이용하지 300m 떨어진 건널목까지 가지 않는다”며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로는 대략 43km에 이르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새벽 사망자가 술에 취한 채 철로 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로 주변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안타까워했다.

“장 교육감, 공립특채 비리 해명하라”

광주교육청노조 주장

광주시교육청의 ‘합격자 바꿔치기’ 사립교사 공립특채와 관련, 시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장휘국 교육감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사립학교교원 공립특채 행태는 진보 교육감이 나 과거 보수교육감 시절이나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이하 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지난 16일 성명에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특채 비리와 관련해 교육감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특정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립교사

5명을 공립교사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행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 속히 진실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호언장담했던 교육감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이번 비리에서 ‘광주시교육감이 아닌 특정단체 조직의 교육감이다’는 시민과 학부모의 격정적 열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보진영의 사고방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담당과장이 힘없는 지

방공무원에게 합격자 바꿔치기를 시한 것도 큰 문제이다”며 “노조는 이런 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이번 비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엄중문책과 사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특정 교원단체 소속 사립학교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면서 특정 과목 1위 교사의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 탈락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받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양과동 의료폐기장 허가 공무원 6명 징계

광주시 통보

최근 광주시의 감사로 건축허가가 잘못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8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소속 공무원 6명을 징계하고, 3명은 훈계할 것을

요구하는 광주시의 공문이 최근 도착했다.

문제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은 최근까지 약 100억원이 투입,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광주시 특별감사 결과 건축허가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광주시는 당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감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을 남구에 통보했다.

시는 또 관련 계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할 것을 남구에 요구했다.

실제 징계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시의 최종안이 확정되면 남구 인사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최근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보했다. 건축주는 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62) 김장동



자녀 허위 출생 신고 베트남 20대 여성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동거하면서 태어난 아이를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여동생의 가족관계부에 등재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베트남 여성 J(28)씨를 공전자 기 등 불실 기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5년 6월 김모(47)씨와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뒤 2개월 만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자 무단가출해 불법체류자인 웹모(31)씨와 동거하면서 태어난 류모(2)군을 여동생(25)의 친자로 출생신고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결혼이주여성이 무단가출해 자국 불법체류자와 동거하면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국적의 결혼이주여성 가족등록부에 불법으로 등재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법 중 어선 흥기 저항맨 접근시부터 총기사용 검토”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중국 불법조업 선원이 검색에 불응하고 흥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단계에서부터 해경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우리 해경 살해사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히 마련된 외교통상 통일위 현안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서남해 경비항정을 하루 6척에서 9척으로 증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대형경비함정 1척이 담당구역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50분에서 1시간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은 지난 16일 “해양경찰의 인력·장비 보강과 전진기지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목포해경 전 응부두를 방문, 박성국 서장으로부터 해상치안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이 해양경찰을 믿고 많은 격려를 보내는 만큼 온 힘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한편 인천해양경찰은 15일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단속대원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중국어선 투원위호 선장 정모(42)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단속대원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리모(46)씨 등 같은 어선 선원 8명을 구속했다.

이어 인천해경은 16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투원위호에 대한 나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중국어선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를 구속했다.

류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59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투원위호 나포를 위해 해경 대원들이 승선했을 때 나포작전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어선을 들이받은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싱싱’ 눈썰매

휴일인 18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금호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외서 밀반입 대마초 상습 흡연

방송인·치과의사 적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방송인인과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해 흡입한 모 방송인인 김모(4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넬받아 파운 치과의사 양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에 필리핀과 태국에서 2차례에서 걸쳐 대마초 100g을 밀수입해 지난 12월14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 화장실에서 흡입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장성군

모 유증주점에서 김씨로부터 대마초 2g을 건네 받아 흡입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케이בל방송 진행자이자 행사 전문 MC인 김씨는 필리핀 등으로 교포 위문공연을 갔다가 불법으로 대마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마약 복용여부를 판단하는 아류사인 검사에서 헤로인 양성 반응을 보여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 및 대마초 밀수입 경로 등을 수사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비둘기 잡으려 주택가 공기총 ‘뿔뿔’

○“근무시간 중에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비둘기를 잡았다며 주택가에 공기총을 발사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 산하기관 기능직 7급 윤모(51)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50분께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창고 앞마당에서 5.5mm 공기총을 발사해 김모(40)씨의 주택 2층 창문 2장을 파손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이날 사무실 주변 제설작업을 하다가 비둘기를 발견하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기총으로 2발을 쏘았으나 1발이 오발돼 김씨의 주택 유리창이 깨졌고, 눈발에 발자국을 남겼다가 경찰의 탐문에 2시간여 만에 달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군수가 법원장 접대”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군수와 법원장, 대학총장 등을 비방한 글을 퍼트린 40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민 판사는 18일 “군수와 법원장, 대학총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퍼트린 혐의(명예

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전남 A군수와 B 법원장, C총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팩스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A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앞둔 A군수가 C총장의 소개로 B법원장을 소개받아 접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약접수 중

2012년 공무원 합격실명회

개강: 1월 2일

이것만 알면 **일시: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좌석관계로 예약자선착순입실]

합격한다! **당일 이벤트**

7.종업반 9.종업반 법원사기반 7.검찰직 소방직 농업직 9.아간반 기술직 사법복지직 명품경력반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무료증정
종합반 교재5권 무료추첨 5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